

\* 외부환경과 조화로우려면  
우선 안쪽의 자아와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 108 자재어 중에서 -

# 세원소식지

[www.sewonsa.com](http://www.sewonsa.com)

\*펴낸이 : 정 윤  
\*편집인 : 유 진  
\*펴낸곳 : 세 원 사  
\*인 쇄 : 형제인쇄·광고

## 한 해를 마치며,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다

정 윤 (세원사 주지)

12월은 겨울의 한가운데입니다. 절기로는 대설(12월 7일)과 동지(12월 22일), 이웃종교에서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12월 25일)도 있습니다. 절기는 계절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지만, 옛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에는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말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보온 역할을 해서 보리가 동해(凍害)를 적게 입어 풍년이 든다는 오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설 무렵에는 메주를 띄어 1년간 먹을 장을 담그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그다음 날부터 낮이 다시 길어집니다. 고대 중국 역법에서는 동지를 ‘일양시생(一陽始生)’이라 하여 땅속에서 새로운 양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동지를 ‘양(陽)이 다시 태어나는 날’, 즉 빛의 다시 비추는 날로 이해했고, ‘작은설’로 여기고 중요하게 지냈습니다.

겨울의 대설과 동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춥고 긴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려 왔습니다. 샷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이 오기를 염원하며 절에서 나누어주는 동지부적을 붙이고, 동지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팔죽을 쑤어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액운을 막는 음식으로 삼고, 대문과 장독대에 뿌리고,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는 긴 밤과 차가운 겨울을 혼자 버티지 않고, 함께 나누며 견디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국가 행사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음력 11월 보름, 동지가 포함된 달에 증동팔관회(仲冬八關會)를 열었습니다. 팔관회는 연등회처럼 등불을 밝히는 연등(燃燈)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하지 이후 태양이 쇠약해지기 시작해서 극에 이르는 동짓달을 맞아, 보름달 속에서 밤새 등불을 환히 밝히고 새해를 준비하는 축제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빛과 관련된 풍습은 선달그믐에도 이어집니다. 수세(守歲)라고 하는데, ‘수세’의 ‘수(守)’는 지킨다는 뜻, ‘세(歲)’는 한 해를 가리킵니다. 수세란 “한 해를 지키며 보내는 일”, 즉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의 복을 맞이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풍습입니다. 불을 밝히고 밤을 새워 새해를 광명으로 맞음으로써 벽사기복(辟邪祈福)을 기원하였습니다. 중국 한대의 『후한서』 「풍속지」에도 ‘제석수세(除夕守歲)’가 기록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에도 ‘송구영신’, ‘제야 타종’ 등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봉행하는 ‘동지기도’, ‘제야철야정진’ 같은 법회도 이와 연결됩니다. ‘선달그믐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라는 속설이 이 수세 풍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지를 어둠이 극에 달해 빛이 다시 시작되는 전환점으로 보는 관점은 동양만의 전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양에서 비슷한 의미를 담은 동지 축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로마에서 사용한 태양력인 율리우스력에 의하면 동지는 12월 25일이었고,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될 때 기존 동지 축제를 폐기하지 않고 ‘예수 탄생 축일’로 의미를 덧입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www.sewonsa.com](http://www.sewonsa.com)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세원사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많은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대설에서 동지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추운 시절이어서, 농부들에게는 일 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와 농사를 준비하는 농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농사일이 한가한 때였지만, 마냥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흙을 잠시 쉬게 하고 도구를 정비하며 지난 한 해 농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의 이웃을 찾아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며 공동체를 돌보았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농촌에서도 농한기는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한 해를 반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고 새해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새롭게 합니다.

오늘날의 12월은 예전과는 또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12월은 한 해 중 심리적 우울감이 가장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며, 번아웃과 공허감이 깊어지는 '연말 우울(Year-end blues)'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는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는 때라 남과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 기대만큼 이루지 못했다는 후회와 압박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며, 가족이나 이웃의 지지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연말연시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한층 깊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에 더해 연말마다 들려오는 여러 어려움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이처럼 어둠을 없애기 위해 등불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에게서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 등불들이 참회(懺悔)·보시(布施)·발원(發願)입니다. 참회는 마음의 어둠을 씻어내는 등불이고, 보시는 차가운 세상에 따뜻함을 더하는 등불이며, 발원은 새해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연말은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찾듯, 참회하고 보시하며 발원하는 수행의 때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편안해져도 금세 마음이 흐트러지고, 해야 할 수행을 잊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을 게을리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 곳에서 바라문 장로 7명이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지 오래되었지만, 장애가 많았다고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부처님 얼굴을 뵈게 되었으니 출가하여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청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가하였고 한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데 이들은 수행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방에 앉아서 삼계에 미혹된 채 소곤거리며 크게 웃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모여 있는 방으로 다음의 계송을 설합니다.

어찌하여 즐거워하는가. 어찌하여 웃고 있는가.

생명은 언제나 소모되고 있거늘

깊고 그윽한 어둠에 가려진 채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何喜何笑 命常熾然 深蔽幽冥 如不求錠)

- 『법구경』 「노모품」 1장

불교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연등을 켜왔습니다. 가장 어두운 계절인 12월에 등을 밝힌다는 행위는 곧 참회·보시·발원을 의미합니다. 묵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등불들입니다. 그럼, 연등에 불을 밝힐 때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선, 진실된 마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전에는 가난하여 기름 한 방울 살 돈도 없던 이가 간절한 마음 하나로 올린 작은 연등이 밤새 꺼지지 않고 가장 오래 빛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현우경』 「빈녀난타품」). 이 이야기는 연등을 밝히는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과 간절함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래가는 등불, 가장 공덕이 큰 등불을 켜기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보시하고 발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마음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이 집착이 되면 삼독심의 하나인 탐욕이라 부릅니다. 자타카 이야기 가운데는 집착이 선한 인연마저 해치게 만든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으로 출가한 두 형제 수행자에게 나가왕 마니깐타가 찾아와 우정을 나누었는데, 동생 수행자는 나가왕의 애정 어린 포용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인연에 집착하여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형은 동생이 그 집착에서 벗어나달라고 요구해 보라고 조언했고, 동생이 보석을 요구하자 나가왕은 '너는 지나치게 구걸하는구나'라는 계송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동생은 오히려 그 인연이 끊긴 것을 슬퍼했지요(Jātaka, No.

253 “The Story about the Nāga King Mañikanṭha”). 이 이야기는 사랑, 우정, 정성 같은 선한 마음도 집착이 되면 오히려 번뇌를 낳고 두려움과 의존을 심화시킨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도 바로 이러한 ‘집착의 마음’입니다. 집착을 비우는 것이 곧 지혜와 평안의 첫걸음입니다.

『금강경』에는 집착이 없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須菩提 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 『금강경』 제18분 「일체동관분(一體同觀分)」

이 구절은 마음(心)의 실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이미 지나가 존재하지 않는 마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심 불가득, 현재의 마음도 찰나마다 변하므로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심 불가득, 아직 오지 않은 마음은 실재하지 않으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과거 · 현재 · 미래, 어느 시점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실체적 마음’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르침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 늘 깨어 있는 마음(無住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반성하고 참회하되 지나치게 후회하거나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발원을 하더라도 그 목표를 지나치게 탐해서도 안 됩니다

동지는 예로부터 함께 모여 서로를 지켜주던 공동체의 문화였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추운 시기, 사람들은 깊고 긴 어둠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집을 찾아가 팔죽을 나누고, 부적을 붙여주고, 마당에 모여 북을 치며 액운을 쫓았습니다. 동지는 외롭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모여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연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우리의 사찰 문화 안에 살아 있습니다. 많은 사찰에서 동지 달력을 나누며 새해의 기운을 전하고, 동지팔죽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 팔죽 나눔은 단순한 나눔 행사가 아니라, 함께 어둠을 지나가는 마음,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자비

행의 표현입니다. 서울 조계사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23년 동지에는 남인사마당에서 2,000 인분의 팔죽 나눔 행사를 열어서 지역의 노인, 장애인, 시민들과 팔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봉은사도 2024년 동짓날에 1만 1천여 인분을 준비하여 주거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봉은사는 팔죽 나눔뿐만 아니라 불자와 방문객들에게 새해맞이 소원등 달기와 달력을 배부하며 새해 소망을 함께 발원했습니다. 광주 남구에 있는 선덕사는 올해 동짓날에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직접 새알심을 빚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해 나눔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동지 풍습의 현대적 계승이며 참회 · 보시 · 발원의 실천입니다. 동지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절기입니다. 함께 모여 팔죽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은 등불 아래 마음을 밝히는 행위는 ‘공동체가 가장 큰 등불’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사찰 공동체 등불’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겨울은 여전히 춥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팔죽 한 그릇이 한 사람의 마음을 데우고, 작은 소원등과 달력이 어떤 이에게는 새해를 맞이할 힘이 됩니다. 사찰의 동지 나눔은 보시(布施)의 공덕이 연기(緣起)의 그물처럼 온 공동체로 번져 나가는 자비행입니다. 작은 한 그릇의 팔죽과 달력 하나, 소원등 하나에는 “나와 너의 고통이 둘이 아니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나눔은 그 자체로 빛을 밝히는 공덕(功德)이 되어, 베푸는 이와 받는 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동지는 빛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서로의 어둠을 조금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밝혀주는 자리에서 우리는 새해를 향한 원력을 다시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찰에서 지역사회, 그리고 도반들과 함께하는 자비 실천의 행사를 마련할 것입니다. 작은 등불을 켜는 여인의 마음으로 불자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좋습니다. 사찰, 도반, 이웃과 함께 이날을 맞아 서로의 어둠을 조금 나누고 서로의 등불을 조금씩 더 밝혀주는 불제자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



# 세원소식

## 후원금 현황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지출	
박순애	30,000	이영구	50,000	보령시한국청소년연합회	1,000,000
이정숙	20,000	서동창	10,000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0,000
이장희	50,000	유정현	10,000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100,000
부정보	50,000	유진스님	20,000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50,000
강상훈	20,000	광명전기	50,000		
유상숙	50,000	이건림	20,000		
박명호	30,000	광명미용실	50,000		
양정하	30,000	이경화	50,000		
유성윤	30,000	김중성	50,000		
강진아	20,000	곽완서	20,000		
박연우	30,000	배두성	20,000		
최부호	50,000				
이용렬	50,000				
김규태	20,000				
권송은	20,000				
유홍주	30,000				
이원호	50,000				
최창복	50,000				
이선엽	30,000				
한명현	30,000				
명청소년소아과	50,000				
우치과	300,000				
형제인쇄.광고	30,000				
박인자	50,000	계	1,470,000	계	1,250,000

여러분의 후원금은 청소년 교화사업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금은 2025년 11월 19일~2025년 12월 18일까지 입금된 것입니다.

<351-0988-2053-63> 농협(세원아정) 후원금 통장입니다. 원하시는 분 입금 부탁드립니다.

위 내역은 시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기부금 지출입니다.



###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매주 화요일: "위기가 새로운길" "사랑의 교실" "바리스타 자격증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심리교육" "자기탐색" "찾아가는 상담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찾아가는 상담교실" "사랑의 교실" "바리스타교실" "위기가새로운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심리교육" "사랑의 교실" "학교밖청소년 졸업식"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 ◆ 매주 화요일: "방송댄스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음식모형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경찰특공대 조립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디저트만들기" "기타교실" "드럼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 매주 화, 목요일 수능후 및 연말연시 집중감시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